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2-1
박현숙 외

1 능동적으로 읽는 힘

최종 단위 평가 1회

04~06쪽

- 01 ③ 02 ④ 03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추가 소비를 하면서 느끼는 한계 효용(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04 ⑤ 05 희망을 잃지 않는(꺾이지 않는) 당당한 모습의 아빠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의미이다.
- 06 ⑤ 07 ⑤ 08 ③ 09 ②

01 <보기>에서 이 글을 선정하기 위해 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요즘 관심 있는 경제 분야의 책을 읽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읽기 목적을 고려하였다.
②, ④ 친구들과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글을 고르기 위해 자신과 친구들, 즉 청소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정하였다.
⑤ 책의 제목과 표지를 통해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구성하고 흥미를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02 감정의 강렬함을 어떠한 재화를 소비를 할 때 느끼는 만족감에 대입하면, 사랑의 감정과 음식이나 물건을 소비하는 것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음식이나 물건을 소비하는 것과 사랑의 감정이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내용은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글을 읽을 때에는 중요한 단어나 문장에 표시하며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가)에서는 첫사랑이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까닭을 경제 원리로 설명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첫사랑'과 '경제 원리'에 표시하며 글을 읽는 것은 점검 및 조정 활동으로 적절하다.
②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기 위해서는 글을 읽기 전 질문한 내용을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따라서 글을 읽기 전에 궁금했던 '한계 효용'의 뜻을 이해하며 읽고 있으므로, 점검 및 조정 활동으로 적절하다.
③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을 때에는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어야 한다.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설명할 내용을 예측하는 내용으로, 점검 및 조정 활동으로 적절하다.
⑤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글쓴이가 첫사랑을 다룬 소설을 언급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점검 및 조정 활동으로 적절하다.

03 (나), (다)의 내용을 통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무한 리필 식당에서 음식을 추가로 소비할수록 만족감이 줄어드는데, 이를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설명한다고 하였다. 즉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추가로 소비를 하면서 느끼는 한계 효용(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추가 소비를 하면서 한계 효용이 줄어드는 현상임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04 (가)에서 '나'는 난생처음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서 목격한 절망과 희망의 꼭짓점이 자신을 한 뼨이나 키운 신의 한 수였다고 하였고, (라)에서 '나'는 꺾이지 않는 아빠의 당당함을 닮고 싶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난생처음 서울에 가서 겪은 일이 '나'를 성장하게 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나'가 서울행 기차를 탄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5 (가)에서 '나'는 생라면을 씹으며 진심으로 응원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생라면'은 '나'가 응원의 의미를 담아 먹는 음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라)에서 '나'는 아빠와 아빠의 쪽방을 잊지 않기 위해 생라면을 경건한 마음으로 먹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가 생라면을 먹으며 응원하려는 대상이 아빠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희망을 잃지 않는 당당한 모습의 아빠를 응원한다는 의미임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6 아빠는 반년이 지나도록 늘 바쁘다, 미안하다고만 하며 오지 않고 있고, '나'는 아빠가 왜 그렇게 바쁜지, 왜 미안한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하여 아빠한테 가기로 결심한다.

07 이 글은 주인공인 '나'를 말하는 이로 설정하여, 사건의 진행에 따른 '나'의 심리 변화와 내면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말하는 이의 심리와 태도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청소년인 '나'를 말하는 이로 설정하여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당당한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희망을 품게 되는 것으로 보아, '나'가 아빠를 굳게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③ 연서에게 자신과 연서가 아빠의 희망이라고 한 아빠의 말을 전해 주려고 했지만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것과 할머니에게 통명스럽게 대하지만 할머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내밀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나'가 표현을 잘하지는 못해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큼을 알 수 있다.
④ '나'가 아빠를 만나고 온 경험에 관한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힘든 삶을 버티게 하는 가족이라는 희망'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8 ㉠ '우리 아빠의 멋짐'은 '나'가 서울에 가서 아빠를 만난 후 얻게 된 깨달음과 관련된다. '나'는 쪽방에서 고생하면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당당한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희망을 품게 된다. 따라서 '나'가 확인한 '아빠의 멋짐'은 아빠의 용기와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09 고향 집으로 같이 돌아가자는 '나'의 말에 아빠는 농사지를 땅과 트랙터도 없는 상황에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 즉, 농사지를 땅과 트랙터는 아빠가 지금 당장 고향집으로 갈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이자, 아빠의 목표이다.

최종 단원 평가 2회

07~09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①
06 아빠의 희망이(란)다. 07 ⑤ 08 ④ 09 ⑤

01 (다)에서 첫사랑 이후에 비슷한 경험을 다시 하게 되면 여전히 설렘과 두근거림은 있겠지만, 이미 경험한 감정이므로 처음만큼 강렬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첫사랑 이후에는 설렘과 두근거림이 사라진다는 내용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02 (라)에서 글쓴이는 첫사랑을 소재로 한 소설「소나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④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의 강렬함 정도에 적용해서 설명하기 위해 글에서 첫사랑을 다른 소설을 언급했다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였다.

오답 풀이 ① 모르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있으므로, 글을 읽으며 궁금한 점을 찾아보는 점검 및 조정 활동이다.
② 글을 읽기 전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글에서 찾고 있으므로, 읽기 전 질문한 내용을 확인하는 점검 및 조정 활동이다.
③ 무한 리필 식당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까닭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해도를 점검하는 점검 및 조정 활동이다.
⑤ 글에 제시된 사례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감정에 적용된다는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는 점검 및 조정 활동이다.

03 어떤 경험이란 처음 겪을 때의 감정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와 (라)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⑤는 글을 읽은 후가 아니라 읽는 중의 점검 및 조정 활동에 해당한다. 글을 읽은 후에는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 파악하기, 알게 된 점이나 깨달은 점 정리하기, 더 알고 싶은 내용 찾아보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04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한다. 따라서 다른 인물의 숨은 의도나 속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오답 풀이 ①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은 작품 안에 있는 '나'가 서술자이다.
②, ④ 이 글은 작품 안의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경험과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은 작품 안의 '나'가 자신의 경험과 속마음을 서술하고 있을 뿐,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05 (가)에서 고모는 '나'가 태권도 상 받은 것을 축하해 주면서 용돈을 주고, '나'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는 등 '나'를 생각하고 아껴주고 있다. 할머니에게 반항하는 '나'를 보며 고모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연서는 오빠도 잘하는 것이 있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가 태권도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말하였다.

③ (라)에서 '나'는 자신을 기다리느라 땀에 젖은 연서의 앞머리를 건어 올려 주며 미안함을 표현하고, 자신과 연서가 아빠의 희망이라고 한 말을 전해 주려고 했지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한다. 이를 통해 '나'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지만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할머니는 평소에 공부는 안 하고 핸드폰만 본다며 '나'를 타박한다. 그러나 (라)에서 '나'가 더위 먹을까 봐 걱정되어 연서에게 '나'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손 선봉기와 차가운 얼음물을 가지고 나가 보라고 한 것에서, 할머니가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아빠는 희망이 있으면 자신이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나'와 연서가 자신의 희망이라고 자신 있게 소리치고 있다. 또한 빨리 집에 오라는 '나'에게 근사한 트랙터를 타고 나타나겠다고 말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06 (다)에서 아빠는 “나, 한태욱의 희망은 한연우, 한연서다!”라고 외친다. 즉 아빠는 '나'와 '연서'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라)에서 '나'는 연서에게 이러한 아빠의 말을 전해 줄까 하다가 부끄러워서 결국 말하지 못한다. 이를 통해 ①에 들어갈 내용은 '아빠의 희망이(란)다'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아빠의 희망이라는 내용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2여절의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7 (라)에서 '나'는 자신과 연서가 아빠의 희망이라고 한 아빠의 말을 연서에게 전해 주려고 했지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라면을 퍽퍽 쳐서 입안으로 쏟아붓는다. 즉 ⑥는 씹스러움과 부끄러움 때문이지 자책감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다.

08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고기에서 비린내가 난다며 코를 막지만, 물고기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 시는 물고기의 입장에서 비린내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는 다양한 향기라는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09 이 시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말이 언어폭력이라는 입장과 자신의 관점으로 다른 대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주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겠다는 것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④ 이 시는 물고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린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폭력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관점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상대에게는 언어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② 이 시는 각각의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는 다양한 향기를 비린내라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이 시는 비린내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는 다양한 향기라는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것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2 표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최종 단원 평가 1회

14~16쪽

- 01 ③ 02 ② 03 ① 04 ⑤ 05 어떤 문
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신중하게 드러내고, 정보나 사실을 전
달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준다. 06 ① 07 ②
08 ⑤ 09 그러고는, (내) 손이 복스럽게 생겨 무슨 일을 해
도 성공하겠다고 하셨다. 10 ④ 11 ④ 12 ③
13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음악을 사용하고, '먼저 시작해 봐요.'라
는 문구를 쓴다. 14 ② 15 ④

01 ①의 '덮어'는 동사 '덮다'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고, ②의 '읽혀'는 동사 '읽다'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반면, ③의 '달려'는 동사 '달리다'의 활용형이고, ④의 '뿌렸다'는 동사 '뿌리다'의 활용형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능동 표현에 해당한다.

02 ㉢는 능동 표현이고, ㉣는 피동 표현이다.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의 주어인 '바람이'가 ㉣에서 부사어인 '바람에'로 바뀐다(ㄱ). 그리고 ㉢는 행위를 한 주체인 '바람'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는 행위를 당한 대상인 '나뭇가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다.(ㄷ)

오답 풀이 ㄴ. ㉢의 서술어 '꺾었다'는 '꺾다'의 과거형으로, 여기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꺾었다'로 만들었다.

ㄷ. ㉢의 서술어에 '-어지다'가 결합된 형태를 ㉣의 서술어로 사용하면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어졌다.'로 쓸 수 있다. 이는 ㉢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지다'를 결합해 피동 표현을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다고 볼 수 없다.

03 '참하다'는 '생김새 등이 나무랄 데 없이 말쑥하고 곱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참되다'는 '진실하고 올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참되다'는 '참하다'의 피동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04 ⑤ '선생님이 우리를 두 조로 나누었다.'는 능동 표현에 해당한다. 이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어를 부사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동사 '나누었다'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나뉘었다'로 바꾸거나 '-어지다'를 붙여 '나뉘어졌다'로 바꾸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선생님의 의해 두 조로 나뉘어졌다.'에서 '나뉘어졌다'는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모두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뉴스 보도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신중하게 드러내고, 정보나 사실을 전달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입장이나 의견을 신중하게 드러내고 정보나 사실을 전달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6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쓸 때에는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조사 '라고'를 조사 '고'로 바꾸어야 한다. ⑥의 간접 인용 표현에서 '앞으라고'는 동사 '앞으라'에 조사 '고'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조사가 바뀌지 않았다는 표시는 적절하지 않다.

07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쓸 때 형식은 유지하지 않은 채 내용만 끌어다 쓴다.

08 ①은 할머니의 말을 내용만 끌어다 쓰는 간접 인용이 사용되었고, ㉡은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유지한 채 끌어다 쓰는 직접 인용이 사용되었다. 간접 인용과 달리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여 끌어다 쓰므로, 인용한 내용에 생동감과 현장감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직접 인용을 사용하여 상대를 부르는 호칭이나 말투 등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현장감과 생동감을 주지만, ㉢에 비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이하여 전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은 '나'의 관점에서 쓴 간접 인용 표현이다. 따라서 ㉢에서는 할머니가 '나'를 부르는 호칭(학생 등)을 확인할 수 없다.

③ ㉠과 ㉡은 모두 할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직접 인용인 ㉢에는 할머니의 말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만, 간접 인용인 ㉣에는 할머니의 말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09 과제에서 말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쓸 때, 내용만 끌어다 쓰는 방식'은 간접 인용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그러고는, (내) 손이 복스럽게 생겨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겠다고 하셨다.'로 쓸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을 간접 인용으로 바르게 고쳐 썼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0 비슷한 대상을 촬영한 사진들이 서로 달라 보이는 까닭은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이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11 현실을 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의 종류에는 제약이 없다. 즉, 제작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현실을 재현할 수 있다.

12 제시된 광고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활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단어를 활용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자는 주제를 강조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3 장면 ⑥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권유하는 제작자의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음악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음악을 쓰고, '먼저 시작해 봐요.'라는 내용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장면 ⑥에 사용할 음악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 문구는 '먼저 시작해 봐요.'를 골랐다.	☐

14 기존에는 주로 건강식품 광고 등에 등장하던 연장자 모델이 최근에는 의류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광고에도 출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연장자 모델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젊은 층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보기>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15 매체 자료의 제작자는 자신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인물, 사진, 쟁점 등을 표현할 때 특정 문구나 이미지 등을 선택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볼 때 어떤 문구와 이미지가 선택되고 배제되었는지, 이를 통해 드러나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은 무엇인지 분석하며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즉 동일한 주제를 다른 매체 자료를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매체 자료 속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모두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단원 평가 2회

17~19쪽

- 01 ⑤ 02 ⑤ 03 ④ 04 ④ 05 ③
 06 ④ 07 ④ 08 ② 09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음료 섭취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0 ③
 11 ③ 12 ⑤ 13 ② 14 '90.9% 항균 효과로 유해 세균 번식을 억제한다.'라는 정보를 선택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높이고 있다.

01 피동 표현을 만들 때에는 일부 명사에 '-하다'가 아니라 '-되다'를 더한다. 참고로, '-하다'는 능동 표현을 만들 때 활용한다.

02 능동 표현을 사용한 ㉠에 비해 ㉡이 피동 표현을 활용해 종업원을 배려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식탁이 닦이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지 않으므로써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으므로써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03 ④ '집 앞에 큰 건물이 생겨서 아름답던 풍경이 가려졌다.'에서 '가려졌다'는 능동 표현에 쓰이는 동사 '가리다'에 '-어지다'를 붙여 피동 표현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해당 표현을 피동 표현이 과도하게 적용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보도되어졌다'는 명사 '보도'에 '-되다'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보도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② '믿겨지지'는 동사 '믿다'에 피동 접미사 '-기-'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믿기지' 또는 '믿어지지'로 고쳐야 한다.

③ '뽐혀졌다'는 동사 '뽐다'에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뽐히었다' 또는 '뽐아졌다'로 고쳐야 한다.

⑤ '쓰여진'은 동사 '쓰다'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쓰인' 또는 '써진'으로 고쳐야 한다.

04 민수의 말에서 '들렸어'는 능동 표현에 사용되는 동사 '듣다'에 피동 접미사 '-리-'를 더해 만든 피동 표현이다. 민수가 이렇게 피동 표현을 쓴 것은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으므로써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① 민수는 능동 표현이 아닌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행위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② 민수는 능동 표현이 아닌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벌어진 상황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민수가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으며, 피동 표현을 쓰면 자신의 의견을 신중하고 완곡하게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기>의 상황에서 민수는 자신의 의견을 신중하고 완곡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민수가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자기를 기다려 준 진희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5 지시 표현은 '여기', '그것' 등과 같이 '화자와 청자의 멀고 가까운'에 따라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주어진 문장에서는 지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간접 인용으로 표현할 때 바꾸어야 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06 '정우는 어머니께 "제가 지금 할게요."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인용된 부분의 '저'라는 높임 표현 대신 '자기'를 사용하고, 종결 표현 '-요'는 '-다'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정우는 어머니께 자기가 지금 하겠다고 말했다.'가 된다.

오답 풀이 ① 직접 인용에서 인용하는 부분의 '저'라는 높임 표현 대신 '자기'로, 종결 표현 '-습니다'를 '-다'로 바꾸고, 조사 '고'를 붙이면 '그는 자기가 실수했다고 사과했다.'가 된다.

② 직접 인용에서 인용하는 부분의 의문형 종결 표현은 '-냐'로 바꾸고, 조사 '고'를 붙이면 '다은이는 나에게 숙제 다 했냐고 물었다.'가 된다.

③ 직접 인용에서 인용하는 부분의 지시 표현인 '이'를 '그'로, 종결 표현 '-어'를 '-다'로 바꾸고, 조사 '고'를 붙이면 '전학을 간 지아는 그 학교도 즐겁다고 말했다.'가 된다.

⑤ 직접 인용에서 인용하는 부분의 '내일'은 어제의 시점이므로,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오늘'이 되고, 인칭 표현인 '너'는 '나'가 된다. 또한 종결 표현 '-게'를 '-다'로 바꾸고, 조사 '고'를 붙이면 '소현이는 어제 오늘 나에게 책을 주겠다고 말했다.'가 된다.

07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므로, 직접 인용을 통해 인용하는 사람의 태도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3 설명과 논리로 나누는 생각

최종 단위 평가 1회

24~26쪽

- 01 ② 02 ① 03 ㉠에는 대상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고, ㉡에는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04 ⑤
- 05 ② 06 ② 07 ④ 08 ⑤ 09 ㉠ 정의, ㉡ 인과, ㉢ 대조 10 ④ 11 ④ 12 ⑤

01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상황을 예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시간의 종류를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분하고,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두 시간 개념의 뜻을 풀이하였다. (다)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대조하였으며, (라)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③ (라)에서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상황과 같이 독자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제시하여,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경우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④ (나)에서 “재미있을 때는 왜 시간이 빨리 갈까?”라는 제목에서 말하는 시간은 둘 중 어느 쪽일까?라고 질문하고, (다)에서 “그러므로 제목에서 말한 시간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답하고 있다. 또한 (라)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낄까? 첫 번째는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질 때이다.”라고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글을 전개하면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⑤ (가)에서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할 때에는 천천히 가던 시간이 친구와 놀 때에는 왜 이렇게 빨리 갈까?’라고 하여 독자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만한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며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02 (다)를 통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모두 ‘과거-현재-미래’의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은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때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시간이 늘 일정한 속도로 흐른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절대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과 개인에 따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상대적인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재미있는 일을 할 때에는 그것에 몰입하면서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까지 잠시 마비된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천천히 가던 시간이 친구와 놀 때에는 빨리 가는 것처럼 시간은 늘 똑같이 주어지는데 상황에 따라 시간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였으므로, 똑같은 시간이라도 상황에 따라 속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절대 바꿀 수 없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08 ㉠에서 활용한 인용 표현은 간접 인용이다.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바꾸어 표현하므로, 직접 인용에 비해 기존의 정보를 왜곡하여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기에 좋은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끌어다 쓰는 직접 인용이다.

09 제시된 글에서는 청소년 카페인 섭취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제시한 후,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음료 섭취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쓰기의 입장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0 (가)에서는 ‘재생’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을 뿐, 이를 다른 색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11 (가)에서 ‘현혈 시 주의할 점에 관한 정보’는 배제되어 있다. 이는 현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칫 현혈에 대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자료를 배제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혈액 백의 이미지를 선택하지 않았다.
② (가)는 현혈을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선택하지 않았다.
④ (나)는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현혈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정보를 선택하여 담아내고 있다.
⑤ (나)에서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현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한다고 볼 수는 없다.

12 매체 자료는 사회상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을 재현함으로써 고정 관념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고정 관념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13 (가)에서 질병 예방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가)의 광고는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상업 광고가 아니라, 사회 문제의 해결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광고에 해당하므로 사람들에게 비누 구매를 유도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4 (나)에는 ‘90.9%의 항균 효과로 유해 세균 번식을 억제한다.’라는 정보가 선택되었으며, <보기>에 제시된 나머지 정보들은 배제되었다. 이는 거품형 손 세정제 사용 또는 보관 시 주의 사항,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언급하면 소비자들의 구매욕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가)는 거품형 손 세정제의 장점만을 선택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높이려 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90.9% 항균 효과로 유해 세균 번식을 억제한다.’는 정보를 고르고, 그 정보를 선택할 까닭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3 ㉠은 시간의 종류를 작은 단위인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은 크로노스의 시간의 뜻을 밝혀 풀이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과 ㉡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바르게 서술하였다.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04 ㉢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도 고래와 상어를 견주어 차이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대조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 오답 풀이** ①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②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④ 대상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05 (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③ (가)에서 요즘은 모든 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감각은 웬만한 자극에는 꿈쩍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빠른 것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 브레송처럼 세상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온몸의 세포를 열어 둔 채 꾸준히 기다리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결정적인 순간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사진을 찍을 때 작가가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브레송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자신의 두 눈처럼 지니고 다녔다고 하였다.

06 (나)에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역은 ‘대전제-소전제-결론’으로 구성되는데, (나)의 논증 과정을 정리해 보면 ‘[대전제] 모든 관찰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 [소전제] 꽃이 피기까지 지켜보는 일도 관찰에 해당한다. / [결론] 꽃이 피기까지 지켜보는 일에도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이다.

07 브레송은 사진을 찍을 때 인위적으로 장면을 연출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따라서 브레송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브레송은 꾸준히 기다린 끝에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였다.

- 오답 풀이** ① 글쓰는 결정적인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꾸준한 기다림 끝에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브레송의 사례는 글쓰는 생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②, ③ 글쓰는 모든 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를 ‘속도의 시대’라

고 표현하며, ‘하지만 과연 무엇이든지 빠르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좋지만 할까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속도의 시대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오랫동안 세상을 응시하여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브레송의 사진은 좋은 장면을 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은 기계가 아닌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고 하였다.

08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은 ‘계획하기(ㄷ) → 내용 생성하기(ㄹ) → 내용 조직하기(ㄴ) → 표현하기(ㄷ) → 고쳐쓰기(ㄱ)’ 순으로 이루어진다.

09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설명하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하면 내용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 ㉠ ‘스트레스의 뜻’은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은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는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만한 주제로는 ‘종이책과 전자책 읽기의 차이점’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나누어 구분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카드 뉴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③ 에너지 절약 실천 사례는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⑤ 폭염이 도시 열섬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과 결과를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1 ‘고쳐쓰기’는 ‘표현하기’ 다음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과정 전반에 걸쳐 글을 점검하고 수정한다.

12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는가?’는 표현 차원에서 점검할 항목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점검할 항목이다.

최종 단원 평가 2회

27~29쪽

- 01** ⑤ **02** ④ **03** ⑤ **04**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05 ② **06** ⑤ **07**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의 공통적인 속성을 근거로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으므로, 유추의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08** ③ **09** ④ **10** ④

01 이 글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까닭을 설명하는 글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글은 예상 독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상 독자에게 맞는 어휘나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예상 독자와 관계없이 쉽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02 나이가 들수록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력이 감퇴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험이 쌓여 새롭다고 느끼는 일이 줄어들고 새로운 자극 없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상대적으로 기억에 잘 남지 않기 때문이다.

03 (나)에서 1996년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진행한 실험을 사례로 들어 나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의 흐름을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였고(ㄹ), (다)와 (라)에서 아이들의 시간과 어른들의 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및 대조하였다(ㄷ).

오답 풀이 ㄱ. (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심리적인 상대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심리적인 상대성'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지는 않다.

ㄴ. (가)에서 나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정도를 속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을 뿐,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설명한 부분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04 ㉠은 나이가 어릴수록 처음 경험해 보는 새로운 일이 많다는 원인과, 이 때문에 아이들의 시간이 어른들의 시간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인과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사용된 설명 방법의 개념을 포함하여 바르게 서술하였다.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05 글쓴이는 브레송과 세잔, 정선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06 (다)에서는 브레송, 세잔, 정선의 사례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논증 방법이 사용된 것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출근 시간에 지하철이 혼잡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하철은 출근 시간에 사람이 많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 낸 ㉡이다.

오답 풀이 ① '지각을 하면 벌점을 받는다.'라는 대전제와 '민주는 지각을 했다.'라는 소전제를 바탕으로 '민주는 벌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② '비가 오면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한다.'라는 대전제와 '오늘 비가 온다.'라는 소전제를 바탕으로 '오늘 비가 오므로 체육 수업을 강당에서 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 진달래와 개나리가 봄에 피는 꽃이라는 공통된 속성을 근거로 진달래가 식용으로 쓰이듯이 개나리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유추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④ 개와 고양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이라는 공통된 속성을 근거로 개가 사람을 잘 따르듯이 고양이도 사람을 잘 따를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유추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07 (라)에서는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공통된 속성을 근거로,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여 맛의 다채로움도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야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다채로움도 모든 사람과 풍경, 그 속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해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즉, (라)에서는 유추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활용한 논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바르게 서술하였다.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08 이 글은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특성과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한 정보 중에서 글의 주제나 목적 등에 맞는 정보를 선정하여 활용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인용하는 것은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09 (다)에서 스트레스의 종류를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구분하고, 둘의 차이점을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ㄹ). (라)에서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발표할 때의 긴장감이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사람과 나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사람을 대조하였다(ㄴ).

오답 풀이 ㄱ. (마)에서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는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은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ㄷ. (나)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10 (라)는 앞 문단과 긴밀하게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의 '그런데'를 삭제하면 문장 간의 연결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접속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제목은 글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므로, 독자가 제목을 보고 글 전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제목을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의 정체' 등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는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특성과 청소년 스트레스'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는 앞 문장과 함께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문장 앞에 '반면' 등의 접속어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는 문장의 호응이 어색하다.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문장이므로 '관리해야 한다'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4 소통하며 성장하는 우리

최종 단원 평가 1회

34~36쪽

- 01 ④ 02 서아, 상대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어려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03 ⑤ 04 ② 05 ③ 06 ③ 07 ④
- 08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09 ⑤ 10 ④ 11 ①

01 (가)에서는 청자인 여학생이 남학생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상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에서는 화자인 아빠가 딸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딸이 이해하기 어려운 '오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가)와 (나)에서 대화 참여자들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까닭은 적절한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사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④와 같은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듣기·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때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며 듣고 말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③ (가)에서 청자인 여학생은 남학생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사용하며 남학생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상대의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 (나)에서 딸은 아빠가 말한 '오금'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빠는 딸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쉽게 풀어서 말해야 한다. 그리고 (다)에서는 서아가 친구들의 표정을 통해 친구들이 '척추 옆굽음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상대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척추 옆굽음증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의 아빠가 점검 및 조정해야 할 듣기·말하기 방법을 수행한 학생이 서아임을 밝혔다.	☐
서아의 듣기·말하기 태도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03 ㉠에서 지후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현서의 의견이 식상하다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지후의 말과 태도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를 존중하면서 부드럽고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풀이 ① 참신한 주제를 떠올려야 한다고 상대를 탓하듯이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상대의 의견에 반대할 때 시선을 피하면서 말하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은 청소년 건강과 관련한 주제이므로, 듣기·말하기의 상황 및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④ 까칠한 목소리라는 적절하지 않은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직설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듯이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이 만화에서 서아는 긴장감 때문에 떨면서 대본을 읽고 있다. 이처럼 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읽으며 발표하면 청중이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발표자는 이러한 청중의 부정적인 반응을 신경 쓰면서 말하기 불안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준비한 자료를 읽으면서 발표한다고 해서 말하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서아는 발표 중에 민수의 지루해하는 표정을 보고 더욱 긴장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③ 서아는 발표 전과 발표 중에 모두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

④ 서아는 발표하기 전에 자신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 본 경험이 별로 없음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고 있다.

⑤ 서아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다 함께 열심히 조사한 내용을 자신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 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05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과정에서 말하기 불안을 겪을 때, 심호흡을 천천히 반복하거나 명상, 간단한 스트레칭 등을 하면 신체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06 ㉡의 하위 항목에서 '정서 안정 효과', '공기 정화 효과', '실내 장식 효과'와 같이 반려 식물의 장점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에는 '반려 식물을 기르면 좋은 점'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소개하고 발표 순서를 안내한다.

② 발표의 '전개 1'에서 반려 식물을 기르게 된 계기를 설명하므로, 자신이 기르는 반려 식물의 사진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발표의 '전개 2'에서 반려 식물의 실내 장식 효과를 설명하므로, 식물의 실내 장식 효과를 알 수 있는 사진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발표의 '정리' 부분에서는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07 식물을 돌볼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와 같은 핵심 내용을 간단한 그림과 함께 제시하면 청중의 기억에 인상 깊게 남아, 청중이 핵심 내용을 오래 기억하도록 할 수 있다.

08 발표를 할 때 청중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자료를 활용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말로만 설명하면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그림이나 도표, 영상 등을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재구성하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자료를 재구성하였을 때의 효과를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9 ‘그만큼 반려동물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겠지요?’, ‘동물이 아닌 식물에 ‘반려’라는 말이 붙으니 낯설게 느껴지지요?’, ‘그렇다면 반려 식물을 기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와 같이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 청중이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0 (라)에서는 대상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인 ‘구분’을 사용하여,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를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가)에서는 청중에게 친숙하면서도 발표의 화제와 유사한 대상인 반려동물을 제시하면서 반려 식물에 대해 발표할 것임을 안내하고 있을 뿐, 반려동물과 반려 식물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 ②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나)에서는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인 ‘정의’를 사용하여 반려 식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을 뿐, 동물과 식물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분류’는 작은 것을 큰 단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다)에서는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인 ‘예시’를 사용하여 식물의 정서 안정 효과와 관련된 두 가지의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마)에서는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인 ‘인과’를 사용하여 방출의 원리에 따른 공기 정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한 예를 들고 있지는 않다.

11 발표자는 ‘㉠ 화면 속 그림’을 순서대로 가리키면서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에 따라 공기가 어떻게 정화되는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은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를 그림으로 제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내용을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면 말로만 설명할 때보다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최종 단원 평가 2회

37~39쪽

- 01** ④ **02** ② **03**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상대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4** ①
- 05** ⑤ **06** ③ **07** ④ **08** ⑤ **09** ⑤
- 10** ④ **11** ② **12** 정리, 발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01 듣기·말하기 전에는 듣기·말하기의 상황(ㄷ) 및 목적(ㄴ)과 대화 참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ㄹ)를 파악하면서 듣기·말하기 과정을 점점 및 조정해야 한다.

오답 풀이 ㄱ. 듣기·말하기는 상대와 상호 작용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이므로, 누구의 의견을 우선시할지 미리 정해 둘 수 없다.

ㄴ. 자신의 듣기·말하기 과정을 성찰하면서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분석하는 것은 듣기·말하기 후에 할 일이다.

02 지후는 현서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심드렁한 표정으로 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을 모둠별 과제의 주제로 하자는 현서의 의견이 식상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지후가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소년의 바른 자세를 모둠별 과제의 주제로 정하는 의견에 손바닥을 마주치며 찬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였다. 이는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과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현서는 모둠별 과제의 주제로 청소년 식습관 개선은 식상하다는 지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
- ③ 우주는 듣기·말하기 상황 및 목적에서 벗어나 학교 끝나고 같이 라면 먹으러 갈 사람이 있는지 묻는 서아에게 대화의 목적을 상기시키고 있다.
- ④ 우주는 청소년 건강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를 조사할지 정하기 위해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 ⑤ 서아는 친구들의 표정을 통해 친구들이 ‘척추 옆굽음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03 ㉠에서 우주는 모둠별 과제의 주제를 정하고 있다는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서아의 말에서 청소년의 바른 자세를 모둠별 과제의 주제로 하자는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처럼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청자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화자의 말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에서 우주가 듣기·말하기를 점검 및 조정한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에 나타난 우주의 듣기·말하기 태도가 적절함을 밝혔다.	☐

04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목소리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해야 한다(㉠). 또한 모둠별 대화에서 상대의 의견에 반대할 때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가)는 무대에서 떨리거나 긴장될 때, (나)는 말하기 불안을 겪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즉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상황에 불안을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말하기 불안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06 (가)에서 뮤지컬 배우는 무대에서 긴장하지 않는 비결이 노래 한 곡을 만 번씩 불러 보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에는 ‘연습’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나)에서는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려면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에는 성공적으로 말하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등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7 발표의 주제를 먼저 정한 후,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자료를 재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발표 주제를 조정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자료 수집 및 재구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자료를 선별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다. ②, ③ ‘계획하기’ 단계에서 발표의 목적과 주제, 예상 청중과 발표 장소 등을 고려한다.

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발표 내용을 ‘도입-전개-정리’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발표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한다.

08 발표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청중의 흥미를 끌 수 있는지가 아니라 발표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인지를 기준으로 발표에 활용할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09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여 제시하면 청중은 영상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라도 자막을 보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출처가 분명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전달할 때 자료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자막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신뢰도를 높이기 어렵다.

② 분갈이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것은 영상의 시각적·청각적 요소의 효과일 뿐, 자막을 추가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보기 어렵다.

③ 자막은 시각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자막을 추가하는 것과 소리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④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면 청중은 자막을 보면서 내용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중이 능동적으로 분갈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 (다)에서 반려 식물을 고를 때에는 반려 식물의 생육 특성이 집의 환경과 잘 맞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직사광선이 잘 들지 않는 집에서는 음지에서 잘 자라는 고사리를 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생육 특성에 따라 별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 길러야 하는 식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반려 식물을 보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꼈던 발표자의 경험을 통해 반려 식물을 기르면 정서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에서 식물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물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식물마다 물을 주어야 할 적절한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반려 식물을 고를 때에는 반려 식물의 생육 특성이 집의 환경과 잘 맞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 식물이 햇빛을 적게 받으면 잎이나 줄기가 지나치게 크고 길게 자라는 웃자람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11 (나)와 (바)에서 발표자가 청중을 둘러보는 등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발표를 보완하기 위해 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말해야 한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12 대상을 설명하는 발표문은 ‘도입-전개-정리’로 구성된다. ‘도입’에서는 발표의 목적과 주제, 발표 순서 등을 소개하고, ‘전개’에서는 발표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며, ‘정리’에서는 발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다. (바)는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청중에게 반려 식물을 길러 볼 것을 권유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발표문의 구성 중 ‘정리’에 해당한다.